

경인지역 방송 설립을 위한 경기지역 준비모임2차 간담회 보고서

참석 : 김충관 (푸른 경기21 사무처장), 이상노 (민노총 대외협력국장)
석진희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정연훈 (전농 경기지회)
이주현 (경기민연련 사무처장), 민진영 (경기민연련 사무국장)
김학균 (희망조합)

위임 :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이대수 (사) 경기시민사회포럼
김현삼 (경기 경실련), 박은호 (경기 YMCA), 김영기 (경기민예총)
남길현 (경기여성단체연합), 김명욱 (녹색자치 경기연대)

<희망조합 보고사항>

23-25일 희망조합 위원장 선거 - 처장, 대외 협력국장 급 조직 개편 예상
사측의 행정소송, 심판은 기자회견 및 판매 가격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예상
인천의 경우 금요일 마다 촛불집회 진행 중
10개의 구별로 서명 전 진행 계획
용인, 성남, 안양 등의 지역과 만나 지지의사 확인

각 단체의 보고사항은 내부 입장을 존중하여 보고하지 알리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단 전농과 푸른경기 21의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알려 주기로 하였고, 위임단체의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합의사항

1. 명칭 : 경인지역 시민참여 TV방송 설립을 위한 경기연대 준비위원회
3월 중순 정도에 발대식을 하기로 한다.

준비위원장 : 이주현 (경기민연련 사무처장)

집행위원장 : 민진영 (경기민연련 사무국장)

2. 지역별 모임이 구성된 지역은 자발성을 보장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발대식 전에 연락하여 모임에 참여를 권유한다.

3. 희망조합의 요구사항인 전국 주비위 참여 인원 5인은 기존의 3인(이대수, 이주현, 임순혜)을 승인하고 2인은 추후 논의한다.

4. 다음 모임에 구체적인 기획안을 마련한다. (김학균, 민진영 담당)

5. 차기모임 : 2005년 2월 23일 오전 11시 (다산인권센터)

☆ 12시에 다른 모임이 있어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 2월 16일

경인지역 시민참여 TV방송 설립을 위한 경기연대 준비위원회